

대학 마일리지 제도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University Mileage Scheme

안수현, 이상준*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Su-Hyun Ahn, Sang-Jun Lee*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Semyung University, Jecheon 27136, Korea

[요약]

대부분 대학들은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비교과 활동내역을 점수로 환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전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학생 경험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가 정착된 대학의 학생 16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감수자에게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전체 영역 및 범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게 된 동기',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이후 경험의 영향'의 3개 영역과 18개 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학생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현행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검토와 향후 대학이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접근할 다양한 시사점을 제안했는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Most universities operate a mileage scheme that grants scholarships by converting students'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to scores to encourage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student experience of this mileage scheme, which universities are strategically providing to their student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16 students from universities where the mileage scheme is established were selected for in-depth interviews and the interview data was analyzed through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secure the validity of research results, feedback was received from a reviewer regarding the appropriacy of areas and categories derived from the study. Ultimately, 3 areas of 'motivation behind participating in the mileage scheme',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the mileage scheme', 'impact of the experience after participating in the mileage scheme', and 18 categories were deriv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focuses on the student experience of the university mileage scheme to present a review of the current university mileage scheme and suggest various implications for universities to consider when approaching the mileage scheme in the future.

Key Words: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Extra-Curricular, Scholarship, Student Experience, University Mileage Scheme

<http://dx.doi.org/10.14702/JPEE.2020.371>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18 October 2020; **Revised** 27 November 2020

Accepted 27 November 2020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sangjun@semyung.ac.kr

I. 서론

대학교육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역량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대학의 교육과정은 학점을 부여하는 교양 및 전공을 포함한 정규 교육과정과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교과 교육과정이란 재학기간 중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학생의 자기개발 노력을 지원하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2]. 최근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늘어나면서 비교과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는데, 비교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교류하며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핵심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3]. 이러한 대학의 비교과 교육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 대학생활적응, 의사소통, 대인관계, 진로관계 등 핵심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그러나 비교과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교과보다 성적 위주의 정규 교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5] 대부분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교과 활동에 대한 참여시간과 활동비중을 고려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마일리지 제도는 교내외 비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참여한 학생들에게 일정 기준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비교과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장학금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의 비교과 교육의 참여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비교과 활동의 학생참여를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7].

또한 ACE 협의회를 통해 정규 교과에 준하는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한 각 대학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1)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등록, 활동성과 입력의 단계를 거쳐 마일리지로 축적하고 이를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2)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성적을 마일리지 점수로 변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량별 성과실적으로 우수 학생 선발, 상담 및 컨설팅, 취업역량을 높이는데 활용, 3) 비교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교과와 연계하여 비교과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졸업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분류

되었다[7]. 이와 같이 많은 대학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학생 유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학생의 자발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8-10].

대학은 비교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수혜자인 학생이 마일리지 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역량함양 도구로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마일리지 제도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발달단계상 후기 청소년에 속하는 대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 의존적인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독립적인 생활로 전환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시기이다[11]. 이에 본 연구는 대학이 학생에게 전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학생 경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합의적 질적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를 수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마일리지 제도 경험에 대해 학생들이 갖는 인식이나 참여과정, 마일리지 제도 경험 자체가 갖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현행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검토와 향후 대학이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접근할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설계

A.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마일리지 제도가 정착되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충북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대학 마일리지 누적 정도에 따른 경험을 세분화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디지털정보원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의 2019학년도 대학 마일리지 목록을 참고하여 마일리지 상위 집단(장학금 혜택 2,000,000원 이상)과 중간 집단(장학금 혜택 500,000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하위 집단을 제외한 이유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경험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12]. 참고로 마일리지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의 활동참여에 따라 획득할 수 있고, 2019학년도 기준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을 받은 학생은 총 925명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1과 같이 집단간 8명씩 총 16명을 선정하였고, 사전에 전화연락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참여동의를 얻어 모집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s

사례	학년	성별	단과대학	마일리지 누적 집단
A	4	여	인문예술대학	상 (장학금 혜택 2,000,000원 이상)
B	3	여	사회과학대학	
C	4	남	인문예술대학	
D	4	여	사회과학대학	
E	4	여	IT엔지니어링대학	
F	4	여	보건바이오대학	
G	3	남	사회과학대학	
H	3	여	보건바이오대학	
I	4	남	보건바이오대학	
J	4	남	인문예술대학	
K	2	여	사회과학대학	중 (장학금 혜택 500,000원 이상)
L	2	남	사회과학대학	
M	3	남	IT엔지니어링대학	
N	4	남	IT엔지니어링대학	
O	2	남	IT엔지니어링대학	
P	3	남	보건바이오대학	

B. 자료수집

본 연구는 먼저 연구자들이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윤리심의를 통과한 후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대학 마일리지 경험에 대한 심층적 탐색을 위해 선행연구와 연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비교과 참여종류, 참여방법, 운영방법, 운영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경험과 관련된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구성하였다[13,14]. 모든 면접은 마일리지 누적 정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연구자들이 직접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면담내용은 전사를 통해 진행될 것을 알려주었다. 면담을 마친 모든 사례에는 번호를 부여하였고 이후 모든 과정에서 사례번호로 처리하였다.

C. 자료분석

본 연구는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학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심리적 변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Hill, Thompson과 Williams(1997)가 개발한 합의적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12,15].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대학생의 성장 단계는 일률적이지 않고,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경험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내면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합의적 질적연구는 면접이나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현상들을 기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추론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참여자들의 경험을 범주화하고 그 과정을 심도 있게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6]. 또한 다른 질적 연구방법론과 달리 연구 참여자가 보고하는 주관적 경험 내용을 최대한 살리면서 연구자의 주관적 편향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연구 시작단계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연구자 이외의 별도의 감수자(auditor)를 두어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 특히 연구자들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적연구과정의 엄밀함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합의를 강조하며, 영역분석, 중심개념 축약하기, 교차분석을 통한 중심개념 범주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연구자들의 합의를 중시한다[17].

본 연구의 구체적인 자료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중심 주제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사례 안에서 발견되는 주제들을 추출한 후 사례간 주제들을 추출하는 2중의 분석과정을 거친 후 최종 결정에서 연구자들간 충분히 합의하여 편견적인 시각이 반영되지 않도록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2)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감수자에게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전체 영역 및 범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3) 이렇게 도출된 범주를 토대로 전체 사례에서의 빈도를 계산하였는데, 대학 마일리지 누적 결과에 따른 경험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학 마일리지 누적 결과에 따른 집단의 빈도도 추가적으로 계산하였다. 4) 마지막으로 빈도와 새로운 영역이 생겼는지 안정성 체크를 통해 확인하였고, 그 결과 빈도와 영역에 변화가 없어 결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5].

III. 연구 결과

합의와 감수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개의 영역을 추출해낼 수 있었고, 이는 18개의 범주로 묶을 수 있었다. Hill과 동료들(2005)의 제안에 따라 전체 참여 인원인 16명이나 15명의 참여자가 보고한 범주는 “일반적(general)”, 참여자의 절반 이상인 9명에서 14명의 참여자가 보고한 범주는 “전형적(typical)”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4명에서 8명의 참여자가 보고한 범주는 “변동적(variant)”, 2명에서 3명의 참여자가 보고한 범주에 대해서는 “예외적(rare)”으로 구분하였다[18].

또한 대학 마일리지 상위 집단(8명)과 중간 집단(8명)을 나누어 마일리지 누적 결과에 따른 하위 표본의 빈도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일리지 상위 집단의 경우, 전체 인

표 2. 대학 마일리지 제도 경험에 관련된 영역 및 범주

Table 2. Student experience of the mileage scheme

영역	범주	빈도		
		전체 참여자	대학 마일리지 누적 집단	
			상	중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게 된 동기(6)	주위의 권유·추천	전형적(10)	전형적(6)	변동적(4)
	흥미유발	변동적(7)	변동적(2)	전형적(5)
	지속적 관심	예외적(2)	-(1)	-(1)
	경제적 혜택	전형적(11)	전형적(6)	전형적(5)
	소속감	예외적(2)	변동적(2)	-(0)
	성취에 대한 갈망	변동적(5)	변동적(3)	변동적(2)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5)	자신감	전형적(9)	전형적(5)	변동적(4)
	즐거움	변동적(5)	변동적(2)	변동적(3)
	타인과의 소통	예외적(3)	변동적(2)	-(1)
	안정감	예외적(2)	-(1)	-(1)
	실력 발휘	전형적(10)	전형적(5)	전형적(5)
3.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이후 경험의 영향(7)	배움에 대한 열정	변동적(8)	전형적(5)	변동적(3)
	자기조절	예외적(3)	변동적(2)	-(1)
	관계향상	예외적(2)	-(1)	-(1)
	개인역량 향상	전형적(9)	전형적(5)	변동적(4)
	생활의 변화	예외적(2)	-(1)	-(1)
	가족들의 격려와 지지	예외적(2)	-(2)	-(0)
	경제적 부담 감소	전형적(11)	일반적(7)	변동적(4)

원이 8명이나 7명이 보고한 범주는 “일반적”, 절반 이상(5명에서 6명)이 보고한 범주는 “전형적”, 마지막으로 2명에서 4명이 보고한 범주는 “변동적”으로 표기하였다. 1명 이하인 경우에는 “-”로 표기하였다. 마일리지 중간 집단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빈도를 표기하였다. 이와 같이 하위 표본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 하위 집단 간의 빈도 차이가 두 빈도 분류(two frequency categories) 이상일 때(예, 일반적 vs 변동적) 집단 간 다른 결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18]. 분석 결과 도출된 3개의 영역과 18개의

범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A.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게 된 동기

우선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학생들은 주위의 권유·추천, 흥미유발, 지속적 관심, 경제적 혜택, 소속감, 성취에 대한 갈망이라는 중심 개념이 도출되었다.

표 3.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관한 영역

Table 3. Motivation behind participating in the mileage scheme

범주	중심개념
주위의 권유·추천	지도교수, 선배 또는 친구가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해보라고 해서 신청함
흥미유발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니 재미있어 보여서 신청함
지속적 관심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분야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서 신청함
경제적 혜택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마일리지가 누적되고, 누적된 마일리지로 장학금을 준다고 하여 신청함
소속감	우리대학 학생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신청함
성취에 대한 갈망	대학생으로서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하여 성과를 내고 싶어서 신청함

1) 주위의 권유·추천

교차분석 결과 ‘주위의 권유·추천’은 10개의 전형적 사례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주위 사람들 즉 ‘지도교수’, ‘학과 선배’, ‘기숙사 룸메이트’, ‘학과 친구’, ‘동아리 선배’, ‘학과 대표’ 등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위의 권유·추천은 학생들의 대학생활 활동 영역이 넓어질 수 있게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입학 초기에는 학교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비교과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기숙사에서 같이 방을 쓰는 선배 언니가 비교과 프로그램이 좋다고 얘기해서 그냥 따라서 신청했는데, 해보니 너무 재미있었어요. 솔직히 기숙사에 있다 보면 저녁시간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과에 참여하면 하루를 알차게 보내서 1학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요. 요즘 지도 선배 언니처럼 후배들에게 비교과 프로그램을 안내해줘요.”(사례 D, 마일리지 누적 ‘상’)

2) 흥미유발

‘흥미유발’은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게 된 동기 영역에서 변동적 사례로 나타났다. ‘친구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재미있는 무언가를 배우는 듯해서’, ‘공연을 보니 너무 멋있어서’ 등 자신의 마음이 이끌리는 분야에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보거나 먼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흥미가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업 마치고 교정을 지나다가 애들이 용기종기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걸 보았어요. 순간 너무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무슨 프로그램인지 물어봤고, 기억하고 있다가 프로그램이 개설되자마자 바로 신청했어요. 학교 안에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해서 너무 좋아요.”(사례 K, 마일리지 누적 ‘중’)

3) 지속적 관심

‘지속적 관심’은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게 된 동기 영역에서 예외적 사례로 나타났다. ‘예전부터 원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됨’, ‘학창시절에 공부로 인해 좋아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뒀음’ 등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이라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표출함을 알 수 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가끔씩 혼자 피아노를 치곤 했어요. 대학에 와서 그걸 실행에 옮기게 되었고, 현재까지 열심히 밴드활동을 하고 있어요. 첫 공연을 했을 때 해냈다는 뿌듯함이 들었고, 그 감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사례 O, 마일리지 누적 ‘중’)

4) 경제적 혜택

‘주위의 권유’와 함께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서 가장 많은 요인은 ‘경제적 혜택’이었다. ‘학비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함’, ‘용돈에 도움’, ‘친구들과 여행’, ‘연인과의 여행’, ‘평소 사고 싶었던 물품 구매’ 등 경제적 혜택은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고, 마일리지 제도 누적점수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이라는 매력적인 유인이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비교과를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저처럼 장학금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집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저라도 부모님께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학금에 관심 많은 친구들 몇몇이랑 단톡방에서 마일리지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사례 A, 마일리지 누적 ‘상’)

5) 소속감

‘소속감’은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게 된 동기 영역에서 예외적 사례로 나타났다. ‘내가 우리대학 소속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 ‘우리대학 학생으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함’ 등 우리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신청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일리지 제도 자체가 학교를 대표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유인책이 됨을 알 수 있다.

“집과 학교와 거리가 멀어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모든 게 다 낯설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대학 소속인가도 싶고... 고등학교 때처럼 누가 관리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 내가 다니는 이상 소속감을 느끼려면 내가 노력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사례 G, 마일리지 누적 ‘상’)

6) 성취에 대한 갈망

‘성취에 대한 갈망’은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게 된 동기 영역에서 변동적 사례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 ‘전공 공

표 4.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에 관한 영역

Table 4.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the mileage scheme

범주	중심개념
자신감	교수님, 선배, 친구가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해 칭찬해줌
즐거움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소소한 재미가 삶의 활력이 되고,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지루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흥미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됨
타인과의 소통	친구들과 대화 나눌 내용이 많아져서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되고,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니까 더 좋음
안정감	배우는 과정 자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함
실력 발휘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게 되어 실력을 발휘하게 됨

부’, ‘취업’, ‘창업’ 등에 도움이 되어서 신청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 경험을 직접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성취에 대한 갈망이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친구가 비교과 프로그램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순간 너무 부럽고, 난 그 시간에 뭐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제가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 친구도 하는데, 저라고 못하겠어요? 저도 이번엔 맘잡고 열심히 해보려고요.”(사례 H 마일리지 누적 ‘상’)

B.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자신감, 즐거움, 타인과의 소통, 안정감, 실력 발휘라는 중심 개념이 도출되었다.

1) 자신감

교차분석 결과 ‘자신감’은 9개의 전형적 사례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기에는 ‘가족’, ‘지도교수’, ‘학과 선배’, ‘기숙사 룸메이트’, ‘같은 학과 친구’, ‘동아리 선배’, ‘학과 대표’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 청취 후 더욱 자신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믿고 의지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은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갖도록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제가 교내 UCC공모전을 통해 우수상을 받게 되었고, 학교 유튜브를 통해 제가 만든 영상이 계속 상영이 된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친구들과 학과 교수님이 어찌 아셨는지 그걸 보시고는 ‘너무 멋지다’, ‘학과 이름을 높였다’, ‘다음에는 최우수상 도전해라’ 등 너무 칭찬을 많이 들어서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카톡에 제 영상을 사진 찍어서 올려 두셨어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다음번

에는 최우수상 받고 싶어요. 하하하”(사례 C, 마일리지 누적 ‘상’)

2) 즐거움

‘즐거움’은 마일리지 제도 참여 과정 경험의 변동적 사례로 나타났다. ‘활동 중 예상치 못했던 소소한 재미가 삶의 활력소가 됨’, ‘배우는 행위 자체가 즐거움’,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즐거움’ 등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활동 과정 중에서 소소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즐거운 일들이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는 평소에 빵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한번도 빵을 만들어본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학교에서 직접 빵을 만들어 보니 발효가 되어 커진 빵도 신기하고, 그 속에 든 공기도 너무 신기하고, 전공 수업시간때 배운 과학원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전 요즘 빵이 구워질 때의 특유의 향과 막 구워진 빵을 먹는 것이 제 일상에서의 가장 큰 행복이어요.”(사례 L, 마일리지 누적 ‘중’)

3) 타인과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은 마일리지 제도 참여 과정 경험의 예외적 사례로 나타났다. ‘학과 친구와의 친밀함’, ‘타 전공 친구와 만날 수 있는 기회’, ‘교직원을 알게 되는 계기’ 등 참여 과정에서 우리대학의 구성원과 소통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일리지 제도 참여 초기의 낯설음과 어색함은 누구나 겪은 적응 과정이고, 학교내의 교직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상호간 소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됨을 알 수 있다.

“처음에 비교과 수업들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아는 사람도 없이 어떻게 버티냐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강의실에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저와 같은 고민을 했었데

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인사도 하게 되고, 모르는 것도 물어면서 친해졌어요. 교수님하면 웬지 무섭고 어려울 거 같았는데요, 용기내서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을 질문하니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어떤 직원선생님께서 저를 잘 봐 주셔서 교내 아르바이트 할 생각이 있는지 전화주셨더라고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서는 것이 좀 덜 두려워요.”(사례 M, 마일리지 누적 ‘중’)

4) 안정감

‘안정감’은 마일리지 제도 참여 과정 경험의 예외적 사례로 나타났다. ‘무엇이라도 열심히 하면 결과가 어떠하든 얻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한 안도감’ 등 스케줄 점점을 통한 학습 및 자기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은 마일리지 제도 참여 자체만으로도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 제도 참여 과정 자체가 스케줄 관리의 자발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심신의 안정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자기주도학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리더십특강을 들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철학, 철저한 관리방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믿고 저만의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알차게 생활하다가 귀가한 날은 뭔지 모를 뿌듯함과 심신의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기분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사례 J, 마일리지 누적 ‘중’)

5) 실력 발휘

‘자신감’과 함께 마일리지 제도 참여 과정 경험의 가장 많은 요인은 ‘실력 발휘’였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 ‘수업내용을 이해하게 됨’, ‘다음

에 무엇을 배워야할 지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됨’ 등 참여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됨을 스스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 제도 참여 과정에서 획득한 결과는 학생들의 현재 학업수준 및 역량을 체득하여 더 높은 단계로 진입하도록 이끌어주는 스캐폴딩(Scaffolding)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입학 당시에는 저보다 우수한 친구들이 많아서 좀 위축되고 속상했는데요,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과제할 때 제가 친구들보다 좀 더 잘하는 걸 느끼게 되었고, 어느 날은 교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들었어요. 이제는 애들도 모르는 게 생기면 절 찾기도 해요. 지금처럼 열심히 해보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사례 B, 마일리지 누적 ‘상’)

C.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이후 경험의 영향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이후 경험의 영향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배움에 대한 열정, 자기조절, 관계향상, 개인역량 향상, 생활의 변화, 가족들의 격려와 지지, 경제적 부담 감소라는 중심 개념이 도출되었다.

1) 배움에 대한 열정

‘배움에 대한 열정’은 마일리지 제도 참여 이후 경험의 변동적 사례로 나타났다.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됨’,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꼭 하겠다고 결심하게 됨’ 등 다양한 경험 속의 작은 성공을 통해 ‘배움’의 진면목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고, 무엇인가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배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배움의 깊이를 더할 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도 열정을 갖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 5.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이후 경험의 영향에 관한 영역

Table 5. Impact of the experience after participating in the mileage scheme

범주	중심개념
배움에 대한 열정	진로분야와 관련된 분야를 자발적으로 찾아보고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등 대학시절 워든 배워보겠다는 에너지가 생김
자기조절	평소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힘들었는데, 오히려 참여를 통해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됨
관계향상	평소 알기 어려운 타 전공 친구들도 알게 되어 먼저 인사를 하고 다가서는 법을 알게 됨
개인역량 향상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교과활동확인서에 많은 결과물이 기록되었고, 지난 학기에는 성적장학금도 받게 됨
생활의 변화	규칙적인 생활과 관리로 인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해짐, 학교에 잘 적응하게 됨
가족들의 격려와 지지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한 지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가 앞으로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함
경제적 부담 감소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취득한 장학금을 학비에 보탬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4학년으로서, 대학시절 동안 가장 크게 느낀 건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모든 길이 열려 있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하려해요. 졸업 후에는 대학시절 다양하게 배웠던 추억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사례 E, 마일리지 누적 ‘상’)

2) 자기조절

‘자기조절’은 마일리지 제도 참여 이후 경험의 예외적 사례로 나타났다. ‘활동을 통해 인내심이 많이 쌓인 것 같음’, ‘친구에게 배려를 많이 하게 됨’,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게 됨’ 등 자아정체성, 진로, 인간관계에서 잠재적이고 불안정한 청소년기 시기를 참여 과정을 통해 순탄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며, 참여를 통해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과정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즐거운 점도 있었지만 힘들고 짜증나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 순간들을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자연스럽게 제 마음 속 짜증, 불안,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불안해하며 주저하기 보다는 우선 해보자는 생각을 해요.”(사례 N, 마일리지 누적 ‘상’)

3) 관계향상

‘관계향상’은 마일리지 제도 참여 이후 경험의 예외적 사례로 나타났다. ‘평소 알기 어려운 타 전공 친구들도 알게 됨’, ‘모르는 사람이라도 먼저 인사를 하는 게 낫설지 않음’, ‘잘 통하는 친구를 사귀게 됨’, ‘교수님과 친해짐’ 등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을 보여주며,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인성 역량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가장 놀랐던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한다는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다양한 출신지역, 배경을 가진 동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과연 애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1학년 초에 동기들과 어색한 분위기에서 강의실을 가다가 복도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이거 하면 장학금을 정말 주나?’라고 제가 한 말을 듣고 동기 중 몇 명이 ‘같이 하자’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이 좋은지 사전조사도 하면서 교수님, 동기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걸 계기로 지

금까지도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전공공부에 관해서도 서로 의지를 많이 해요. 애들이랑 계속 같이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사례 P, 마일리지 누적 ‘중’)

4) 개인역량 향상

‘개인역량 향상’은 9개의 전형적 사례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학점 향상’, ‘자격증 취득’, ‘국가고시 도전’, ‘교외 공모전 도전’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아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의 실현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아성취감이라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과 교내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했고,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어요. 솔직히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상장을 보니 몽클한 거예요. 야!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올해 말에는 외부에서 유명한 교외 공모전에도 도전할 예정이고, 취업도 이 분야로 할래요.”(사례 E, 마일리지 누적 ‘상’)

5) 생활의 변화

‘생활의 변화’는 마일리지 제도 참여 이후 경험의 예외적 사례로 나타났다. ‘아침에 기상하게 됨’, ‘예전보다 건강해짐’, ‘게임하는 시간이 줄어듦’,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됨’ 등 참여 행위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것을 나타내며, 평소 생활태도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1학년 때 자취방 밖을 안 나오고 계속 게임만 했어요. 당연히 성적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학사경고 대상자가 되어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해보니 재미있었어요. 시간관리, 학업관리도 하면서 살아야지, 대학생까지 돼서 이렇게 인생을 내 맘대로 살면 안된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사례 I, 마일리지 누적 ‘중’)

6) 가족들의 격려와 지지

‘가족들의 격려와 지지’는 마일리지 제도 참여 이후 경험의 예외적 사례로 나타났다. ‘장학금을 받았을 때 가족들이 매우 행복해함’, ‘친척들에게 내 사랑을 하심’, ‘용돈을 더 주심’, ‘우리 딸(아들) 잘 하고 있어’ 등 가족들의 지지는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나타냈다. 가족의 격려와 지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수용, 사랑 등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상호

작용으로서 가족의 긍정적인 지지가 이루어질수록 사회성, 자율성, 독립성이 증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중고등학교때 당시에는 솔직히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학교나 집에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대학교에 와서 첫 장학금을 받았는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웃으시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행복했고, 더 잘해서 더 많이 웃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사례 D, 마일리지 누적 ‘상’)

7) 경제적 부담 감소

‘개인역량 향상’과 함께 마일리지 제도 참여 이후 경험의 가장 많은 요인은 ‘경제적 부담 감소’였다. ‘등록금에 보탬’, ‘학원비 납부’, ‘교재 구매’, ‘문구 구입’ 등 학업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다소 해소되어 학업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에 대한 하위집단간 빈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마일리지 상위 집단(일반적)이 중간 집단(변동적) 보다 두 수준 이상으로 빈도가 높아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학금 수혜는 대학생의 비교과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한 경제적 부담감 감소는 대학생들의 학업성취, 대학생활 적응 등에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입학할 때 장학금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대학을 선택했어요. 지금은 군대도 다녀왔는데 부모님께 용돈까지 손 벌리기는 너무 죄송하죠. 성적장학금은 솔직히 제가 아직 공부 부족해서 받는 게 불가능하지만,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장학금은 저 스스로만 노력하면 받을 수 있다는 확인이 있어요. 지난 학기에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았는데, 제 자신이 대견하고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 공부도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사례 C, 마일리지 누적 ‘상’)

IV. 결론 및 시사점

대학생들은 학습을 주된 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제한적일 수 있다.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성적 외에 학습과 관련된 다른 장학금 지급 기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다. 학생들이 성공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기 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19]. 이에 본 연구는 합리적 질적연구방

법을 사용하여 비교과 활동을 통해 대학 마일리지 제도의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 16명으로 대상으로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게 된 동기,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참여한 이후 경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3개 영역 18개의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각 영역 내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범주는 각 사례에서 나타나는 빈도수에 따라 일반적, 전형적, 변동적, 예외적으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경제적 혜택의 빈도 수가 가장 높은 전형적 사례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혜택이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변인들의 권유·추천 역시 전형적 사례로 나타났는데, 신뢰하는 주변인들이 제공해준 정보를 신뢰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은 실력 발휘의 빈도 수가 가장 높은 전형적 사례로 나타났는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수준 및 역량이 성장하고 있음을 체득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스스로가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감 역시 전형적 사례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노력에 대한 주변인들의 인정, 칭찬 등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도전정신을 갖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이후는 경제적 부담 감소가 가장 빈도 수가 높은 전형적 사례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혜택은 비교과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학업을 유지하고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역량 향상 역시 전형적 사례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의 실현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아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 마일리지 제도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까지 혜택을 제공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토대로 한 활동 경험은 그들의 내면과 가치관, 비전을 변화시키고 보다 나은 개인으로 성장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대학은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마일리지 누적 현황 및 내역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전공, 관심분야 등에 맞는 적절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과기반 보상제도 하에서 보상을 받았다는 것은 학교가 정한 기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음을 의미하므로 일종의 성

공 경험으로 볼 수 있고, 보상을 받는 것은 개인의 역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20]. 대학 마일리지 제도는 비교과 교육의 자발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현재의 수준을 넘어 다음 단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지적 자극과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성취를 기반으로 하는 외재적 보상은 자기 효능감 혹은 인지된 자신감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고자 비교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추천 로드맵을 구성하여 학생의 부족한 역량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교과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는 낮은 편이고, 역량관리 및 비교과 관리시스템 역시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하여 비교과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제고 및 성과관리, 데이터에 기반한 프로그램별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 비교과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 등을 세심히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마일리지 제도가 정착된 한 개의 대학에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학생 경험을 탐색했는데, 수도권-비수도권, 국립-사립, 2년-4년, 오프라인-사이버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학생 경험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향후 양적 연구를 통해 질적 연구결과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비교과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과정 속에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그것을 발판삼아 자신의 미래 계획 목표 수립에 한 발짝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emyung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20)

참고문헌

- [1] J. M. Lee, G. J. Lee, and J. Y. Kang, "A study on the effects of extracurricular programs on the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21, pp. 355-375, November 2019.
- [2] K. W. Yang,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university extracurricular education management and accreditation System: U-CAAM," *The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24, no. 3, pp. 115-131, September 2015.
- [3] H. W. Kim and S. Y. Kang, "Case study on the extracurricular programs for enhancing core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2, pp. 337-357, January 2018.
- [4] J. M. Kim, Y. E. Yoo, and S. W. Lee, "The analysis of effectiveness and review of university extra-curricular program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17, pp. 773-791, August 2017.
- [5] Y. J. Choi, "Effects of competency-bas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architectural convergenc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7, pp. 225-230, July 2017.
- [6] E. Y. Kim, "A study on the extracurricular activity of women's university - student perceptions and directions for development focusing on C women's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3, no. 4, pp. 39-70, 2019.
- [7] H. J. Moon, "Establishment of university competency-based comparison 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3, pp. 59-80, February 2019.
- [8] B. Sharp and A. Sharp, "Loyalty programs and their impact on repeat-purchase loyalty pattern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vol. 14, no. 5, pp. 473-486, December 1997.
- [9] L. O'Brien and C. Jones, "Do rewards really create loyalty?," *Harvard Business Review*, vol. 73, no. 3, pp. 75-82, 1995.
- [10] S. H. Ahn and S. J. Lee, "The effect of value perception of the university mileage system on loyalty,"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vol. 11, no. 2, pp. 305-311, December 2019.
- [11] J. J. Arnett,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12] C. E. Hill, B. J. Thompson, and E. N. Williams,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25, no. 4, pp. 517-572, October 1997.

- [13] C. N. Park and W. H. Chung, "Study on the effects of non-subject educational programs influencing the cor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the case of K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1, no. 1, pp. 39-71, 2017.
- [14] S. Y. Kim and M. K. Lee, "A study on students' perceptions and needs about college extracurricular program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9, pp. 585-609, September 2016.
- [15] C. E. Hill,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 [16] G. M. Kim and N. U. Jeong, "Novice therapists' difficulty experienced in counseling session and coping process: a qualitative analysi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6, no. 1, pp. 1-20, 2004.
- [17] H. R. Kim, S. R. Yoo, and E. Y. Son, "Trend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on career- from 2010 to 2016 focus on the Korean Domestic Journa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3, pp. 173-191, September 2017.
- [18] C. E. Hill, S. Knox, B. J. Thompson, E. N. Williams, S. A. Hess, and N. Ladany,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52, no. 2, pp. 196-205, April 2005.
- [19] J. W. Park and C. So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contingent rewards and intrinsic motivati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moderating effect of reward decision point," *Korea Business Review*, vol. 18, no. 3, pp. 1-26, 2014.
- [20] R. Kanfer, "Motivation theory and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1, no. 2, pp. 75-130, 1990.



안수현 (Su-Hyun Ahn)_정회원

2016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2017년 5월 ~ 현재 :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관심분야> 교육측정, 교육평가, 미래융합교육



이상준 (Sang-Jun Lee)_정회원

2010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2013년 3월 ~ 현재 :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관심분야> 데이터과학, 마케팅, 전산통계